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17 년 4 월 9 일 (가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6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의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5)

봉헌 (213)

성체 (172)

파견 (119)

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장 글라라(구역장), 유 마리아,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켄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신 이윤.

2 구역: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헬레나,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장 올리안나,
김클라라,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릃다, 김 유스티노,
김희정, 고순영.

" 하느님은 스스로 미천해지실수 있을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 세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 서	복 사
4/9/1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이 요한
4/16/17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이 요한
4/23/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이 요한
4/30/1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이 요한
5/7/17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이 요한

영어독서: Stephanie Limon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4/2/17	\$285	0.00	\$500

백합꽃 \$40.00

성당 청소 봉사자 스케줄 (5/6/17 이후 봉사자와 문의사항은 이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 오후: 3 시

날 짜	봉사자	날 짜	봉 사 자
3/4/17	이그레이스, 장울리안나	4/8/17	김 마르타, 신 이윤
3/11/17	김 희정, 고 순영	4/15/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18/17	김 유스티노, 김유스티나	4/22/17	배 시몬, 김 안드레아
3/25/17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4/29/17	오 베드로, 오 루시아
4/1/17	장 글라라, 김 클라라	5/6/17	이 바실리오, 최 마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봄 하마йка: 6 월 4 일

금년에는 우리 한인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봉사 와 협조를 있기를 기대 합니다.

한인 공동체 성모의 밤 행사: 5/22, 오후 6 시 미사후

금년도 성모의 밤 행사를 5 월 22 일 오후 6 시 미사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금년에도 각자 봉헌할 꽃을 정성되어 준비 하셔서, 각자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모님께 바치는 글, 또한, 각자 정성되어 준비하셔서, 각 구역별로 낭송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 주간 미사 안내

성 주간 미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목요일(4/13/17) 7:00 PM 미사

성 금요일(4/14/17) 3:00 PM 십자가의 길

7:00 PM 미사, Passion of the Load.

성 토요일(4/15/17) 9:00 AM, 예비신자, 대부, 대모 예행 연습

8:00 PM 부활 성야 미사, Easter Vigil Mass

부활절 (4/16/17) 8:00 AM 부활절 미사

성체조배: 5/4/17, 오후: 6 시 30 분

지난 4 월 6 일 성체조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성시간동안에 함께 기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5 월 4 일에 있습니다.

백합 꽃 봉헌 과 매일 미사 책값

부활절을 맞아 백합 꽃을 봉헌 하실분은 백합 꽃 값을 재무부장님에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매일미사 책값을 미납하신분 납부 부탁 드립니다.

공지사항 - 공지내용

주일미사 주보에 공지 사항이 있으신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 시 까지, 다음 주소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박 니콜라스, youngwpark@sbcglobal.net or 카톡, 멧세지 는 661-703-595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엄마! 사랑합니다

최 승현 카타리나/ 배우

"평화를 빕니다."

미사 중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저와 엄마의 눈이 처음 마주칩니다. 엄마는 12 년 전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고계십니다. 미사 전 연습으로 늘 일찍 성당에 가시기 때문에 저는 성가대 뒷자리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사를 드리다가 그때 처음 엄마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그렇게 밝고 기쁜 표정을 지을까?’ 궁금할 정도로 엄마의 표정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엄마가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당신의 자녀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엄마를 행복하게 했구나 생각하니 괜스레 눈물이 차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것’ 이란 말이 가슴을 치는 요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때부터매일 새벽미사에 참석하는 엄마는 우리 가족 신앙생활의 정신적 기둥입니다. 어린 나이에 줄린 눈을 비비며 1 년 동안 엄마와 함께 새벽미사를 드렸었지요. 이사를 간후 저는 더 이상 엄마와 미사에 함께 가지안았습니다.새친구들을사귀었고 반주자와 성가대 단장을 겸하며 많은 시간을 성당에서 보냈습니다. 실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 놀고 싶은 맘이 더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 그 아이는 자라면서 사춘기를겪었고 학업과 친구들과, 자신의 다양한 희망을 좇으며 점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 어려움을 겪을 때면 ‘걱정하실까봐’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늘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내가 내어주지 않는 시간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서른을 훌쩍 넘기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음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모두의 엄마, 그리고 아빠입니다.

자식을 낳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예수님께도 성모님이 계셨지요. 저는 종종 예수님께도 잘 전해달라며 성모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제 4 처 예수님과 성모님의 만남에서는 늘 눈물이 납니다. 성모님은 인간이셨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여인으로는 견딜 수 없었을 자식의 수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아프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만에 찾은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대답했을 때 엄마는 아들이 대견하고 감사하면서도 쓸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보다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느님께 의해 승천하신 성모님이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과 꼭 붙어 행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평화의인사를 나누는 엄마의 눈빛처럼 세상 모든 엄마들이 반짝거리는 하루이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어준 시간 속 에서요.

서울 주보에서

성경의 동,식물

약초로 사용한 고수풀

고수풀은 하느님께서 주신 만사를 설명하는데에 인용된 식물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탈출 16,31).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민수 11,7). 고수풀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복통이나 현기증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 약초의 하나이며, 고수풀의 씨는 아주 중요한 향신료 였다.

- 카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발행-